



준비와 목탁

가연숙 기자

ornflower@buddhapia.com



상상력의 재구성과 문화 왜곡

을 하반기 문화 키워드는 단연 '신윤복'이다. 그러나 불교계는 그의 등장만 반갑지 않은 모양이다. 영화 '미인도'에 보여준 조선시대 불교 묘사에 '스님과 사대부 규종처자의 정사 장면이 '재구성 혹은 왜곡'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영화사측은 흐름상 필요한 장면이라고 해명하며 수줍음 필름은 사찰 정사 장면을 최종 편집기로 해 일단락 된 분위기다.

대중이 열광한 '신윤복'은 어떠한가. 영화 '미인도'는 11월 13일 개봉해 503개 극장에서 상영, 영화진흥위원회 집계 200만 관객 돌파를 기록했다. 12월 4일 종영한 드라마 <바람의 화원>은 문근영, 박신양을 기용해 14%대 꾸준한 시청률을 보였다. 서울 간송미술관 조선시대 서화전은 신윤복의 '미인도'를 보기 위해 10만 명 관객이 몰려 가을 정기전이 12월 말까지 연장됐다. 드라마의 원작소설 <바람의 화원> 또한 베스트셀러 대열에 올라 불황에 골짜기 없는 문화의 파장을 실감했다.

신윤복 신드롬 요인은 한 시대를 풍미한 두 화원 가운데 고증에서 정체가 불분명했던 신윤복이 여자들의 발상으로 재해석한 문화 콘텐츠에 있다. 영화 '미인도'에서 스승 김홍도가 제자 신윤복에게 '사람의 눈은 언제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본다.

너는 요즘 무엇을 보고 있는냐?'를 묻는다. 신윤복은 저속한 풍속화를 그렸다는 모함으로 관가에서 고문당하며 "흔들리고 유희하며 사랑하는 인간의 마음이 아름다워 그린 것 뿐, 단 한 번도 거짓된 적 없다"고 말한다. 연출자의 의도가 드러나는 장면이다.

풍속화를 통해 인간의 실상을 찾는 과정에서 신윤복의 마음에 묶여있던 여성성과 욕망이 화폭에 투영된다. 면밀히 따지면 실제 신윤복은 이미 어린 나이에 자살했다. 타고난 재주 때문에 신윤복으로 살아야 했던 누이동생의 알음알이가 표출된 것이다. 강무와 사랑에 빠진 신윤복이 사찰에서 기도하며 죄를 비추는 '업경대(業鏡臺)'에 자신을 비추는 장면이 아마도 불교 상상으로 아우른 영화의 비극적 인연이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영화의 제목은 '신윤복'이 아닌 '미인도'이다. 영화가 인간 신윤복의 전기를 다뤘다면 상상에만 그쳤을 일들이 많다. 한 예로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에는 타락한 신부가 창녀촌을 드나든다. 이 공연이 성직자를 왜곡했다면 1990년 미국에서 초연해 현재까지 각광받을 수 있었을까? 중생의 삶을 예술로 승화하는 것과 저속한 상업주의를 구분하는 안목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승호

110-734 서울특별시 중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예시어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사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자비로 세상과 소통하다

제10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 '2008 한국불교자비나눔대축제'

설립 14주년 만에 20개에서 700개로 위탁운영 복지관 수를 확장하며 눈부신 성장을 이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지관)이 제10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 '2008 한국불교자비나눔대축제'를 개최했다.

사회복지재단은 12월 4일 W컨벤션센터에서 불교·생태·복지의 만남으로 독자적 영역을 구축을 논의하고, 불교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우수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단체를 치하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포교원장 혜중 스님,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보건복지가족부 전제회 장관, 국회보건복지가족부 변용진 위원장, 청와대 강유구 사회정책수석비서관, 국회정각회 부회장 안홍준 의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대회는 1부 '불교와 복지의 만남' 세미나, 2부 기념법회, 3부 만찬 및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2부 기념법회에서는 불교사회복지유공자 시상식도 열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표창자 4명 등 모두 17명에게 공로패가 수여됐다.

기념법회에서 지관 스님은 "봉사하는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시선,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 참된 불교를 일깨워야 한다. 한 예로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에는 타락한 신부가 창녀촌을 드나든다. 이 공연이 성직자를 왜곡했다면 1990년 미국에서 초연해 현재까지 각광받을 수 있었을까? 중생의 삶을 예술로 승화하는 것과 저속한 상업주의를 구분하는 안목이 필요한 시점이다.



'2008 한국불교자비나눔대축제'가 12월 4일 W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앞줄 오른쪽부터 강유구 사회복지수석, 지관 스님, 변용진 의원, 전제회 복지부장관, 보선 스님.

불자가 하나 돼 불경기를 극복하자"며 "복지부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인류가 당연한 환경문제를 불교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한 '불교! 생태와 함께 소통하다' 생태문화포럼도 진행됐다.

'불교적 생태담론 불교복지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를 발표한 고영섭 교수(동국대)는 "최근 사회복지학은 기술적 방법론만으로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이 어려워 '영성(spirituality)'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며 "불교의 불성과 연기론이 제시하는 '환경보살' 혹은 '생태보살'과 같은 보살적 인간상은 불교생태 담론이 사회복지 영역과 소통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불교사회복지 활동과 불교생명

운동의 만남을 위한 제안'을 발표하며 이정호 운영위원장(불교생명연합회)은 "최근 복지의 최대 과제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라며 "불교생명운동은 자연친화적 삶을 넘어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생태 프로그램이 대중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찰! 노년의 복지공동체를 꿈꾸다'를 발표한 한광웅 前 녹색대학교수는 "인류의 출현부터 생태·복지·불교는 하나였으며 생명공동체의 대안은 '사찰'에 답이 있다"며 "마을 근처 사찰이 복지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며 삶에 대해 올바른 성찰과 철학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연 기자 un82@buddhapia.com

마곡사 금품수수·승적 위조 논란

조계종 제6교구본사 공주 마곡사가 말사주지 임명시 금품수수 의혹과 승적위조 논란으로 송사에 휘말렸다.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는 12월 3일 마곡사 주지 범용 스님이 말사 주지 품신을 대가로 한 금품수수 혐의와 주지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앞두고 금품을 살포했다는 '마곡사 거사법 금강회'의 진정과 관련, 범용 스님을 소환해 3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그러나 범용 스님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법부는 조사 후 범용 스님을 일단 돌려보낸 뒤 조만간 다시 불러 재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 공주포교당 주지 Y 스님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마곡사 교구 중앙종회의원이자 K사 주지인 T 스님은 승적을 위조한 가짜 승려"라며 T 스님을 상대로 '중앙종회의원 및 주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스님은 이어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상대로 '중앙종회의원 선임 및 주지임명무효 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Y 스님은 "이 문제를 종단 내부에서 처리하기 위해 호법부에 진정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어 부법부는 조사 후 범용 스님을 일단 돌려보낸 뒤 조만간 다시 불러 재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성우 기자

영배스님 일산병원 입원

영담스님 이사장 직대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을 대신해 영담 스님(불교방송 이사장)이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동국대 법인 관계자는 12월 2일 "영배 스님이 동국대 일산병원에 입원하기 전 영담 스님을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법인 정관 제28조 1항에 따르면 직무대행을 지명하는 데는 하자가 없다.

동국대 병원 측은 영배 스님이 장기간 가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 판독이 사법부에 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제20회 포교대상 시상식' 봉행 한해 포교 각계의 공로를 치하하고, 신년 불법홍포를 다짐하는 조계종 '제20회 포교대상' 시상식이 12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예술공연장에서 봉행됐다. 포교원장 혜중 스님과 수상자 등 400여 명이 동참한 법회에서 지관 스님은 "포교는 아직 불교에 입지하지 아니한 사람을 부처님의 품으로 이끄는 일"이라며 "오늘 포교대상을 수상한 분들을 본받아 불법을 세계에 널리 전파하자"고 당부했다. 사진=박재원 기자

제16회 불교언론문화상 발표

대상에 법보신문...17일 시상식

법보신문사 기획취재단의 '불자들의 대사회 참여의식 제고기회' 기사가 제16회 불교언론문화상 대상에 선정됐다.

조계종 불교언론문화상 운영위원회는 12월 2일 제16회 불교언론문화상 수상자를 발표하고 불교방송의 이웃돕기 프로그램인 '거룩한 만남' 900회 특집을 불교언론문화상 라디오 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

또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은 12월 17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김성우 기자

조계종 자원봉사단

전국자원봉사대회 대통령상

조계종 자원봉사단(단장 대오)이 제3회 전국자원봉사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태안지역 기름유출 사고에서 2007년 12월 13일부터 2008년 4월 2일까지 1만2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동원해 헌신적으로 봉사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12월 10일 오전 10시 30분 과천 국토해양부에서 열린다. 이상연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판권은 저작권과 관련해 동시에 자국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실익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 현대불교 영상사업담당/감독:김명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 02-2004-8279

대한불교 화엄조계종 창종1주년 기념 법회 및 비구니원 개원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존경하는 대한불교화엄조계종 종도 및 사부대중 여러분!
맑고 투명한 종단 대한불교화엄조계종은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말씀에 따라 생활속에서 불법을 널리 흥포하고 불국정토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 화엄조계종이 창종하여 부처님의 혜명을 잇고 종지와 종풍을 신앙한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이에 부처님의 광명을 만고에 더욱

빛나게 하고 삼보를 법계에 유전케 하고자 다음과 같이 창종 1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합니다. 대덕 큰스님과 종도스님 사부대중은 동참 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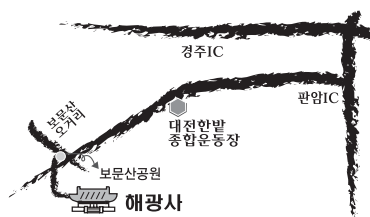
아울러 비구니원 개원 법회도 봉행을 하고자 하오니 정진과 교화에 다망하시더라도 비구니원의 진흥 발전과 불자님들의 신심고취를 위하여 전국에 계시는 스님 많은 불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원드립니다.

일시·장소

불기 2552년 12월 14일 일요일 (음력 11월 17일) 오전 10시
해광사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151-2)

문의

해광사 042)253-3039, 011-425-3039
총무원 054)632-2799
총무원장 권한대행 011-228-7813



- 종 정 : 덕정 법정 예하
- 봉행위원장 : 총무원장 권한대행 거산 혜상
- 봉행위원 : 포교원장 금담, 복지원장 법운, 비구니원장 해광, 총무부장 금오, 사회부장 벽암, 교무부장 혜명, 포교부장 도법

*총본산 : 경북 영주시 안정면 봉암리 428번지 봉황사

대한불교 화엄조계종 봉행위원회

입종 안내

대한불교 화엄조계종에서는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흥포하고 뜻을 함께 하실 종도들을 모십니다. 특히 본 종단은 종도들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종단 운영도 맑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엄조계종은 귀일심(歸一心)을 목표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일심사상과 통불교적(通佛敎的) 귀일사상(歸一思想)인 화쟁사상(和爭思想)과 일체무애인 일도출생사(一切無礙) 一出道生死라는 원효대사의 무애사상을 바탕으로 이 세상이 진속불이(眞俗不二) 평등무애(平等無礙)한 화엄이(華嚴) 장엄되는 그날까지, 대승불교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종단이 될 것입니다.

입종에 대한 많은 문의 바랍니다.

- 총본산 : 경북 영주시 안정면 봉암리 428번지 봉황사
- 문의 : 총무원 054)632-2799
창종주 011-228-7813

*종단입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종주 혜상스님께 문의 바랍니다

대한불교화엄조계종 개인 사찰 보호 특별법 중에서 -

제1조. 개인 사찰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분송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